

24시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 농촌주거환경 개선 본격 추진

임실군, '재난상황팀' 신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일원화

임실군이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재난상황팀'을 신설하고,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조치는 자연재난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화재·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대형·복합화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재난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추진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자연재난의 양상이 급변하고, 사회재난 역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실군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재난관리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상황 인지부터 초기대응, 보고와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끊임없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현장중심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재난상황팀은 임실군 재난안전대책



임실군이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재난상황팀'을 신설하고,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본부의 핵심조직으로서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초동 대응조치 및 보고 체계 일원화 △재난 예·경보 시스템 통합 관리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 강화등을 전담 수행한다. 특히, 야간과 휴일 등 기존에 대응이 취약했던 시간대까지 공백없이 관리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상시대응 체계를 완성했다.

군은 재난상황팀 신설을 계기로,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군민이 일상

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속 안전망 구축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재난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재난상황팀 신설을 통해 24시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완성하고,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기조에 발맞춰 군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 임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빈집 정비·노후 주택 개선 등 7억 6200만원 투입

순창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억 6,2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빈집·행랑채 철거 정비사업 △농촌 지방개량 사업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와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은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빈집은 가구당 30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행랑채의 경우 일반 가옥은 120만 원, 슬레이트 지붕 가옥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빈집 40호와 행랑채 30호 등 총 70호에 대한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지방개량 사업'은 지방 노후로 인한 누수, 단열 저하 등 주거 취약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총 25호의 주택을 선정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은



군이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구당 약 1,600만 원 규모로 총 6호가 대상이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해당 부지를 텃밭,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1년 이상 활용하도록 해 지역 내 공동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농식품 기업 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재(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연 매출 100억 미만의 농식품 제조기업 및 청년기업(2세 경영 병행)을 대상으로 기업별 필요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며, 기업 주도로 홍보 및 광고, 디자인 패키지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이 지원되고 통합마케팅을 통해 중대형 유통

채널 입점 컨설팅, 국내 유통사 MD초청 상담회 및 팝업스토어나 국내 박람회 참여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공동관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1월 19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재(재)진흥원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asy1127@jfire.kr)을 통해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선정을 거쳐 3개소에 총사업비 9천만원을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적극 홍보

순창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456건, 약 1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 4,500원에

서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025년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 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2025년도 벗짚환원 지원사업 완료

순창군, 병해 예방 효과 뚜렷

순창군은 2025년도 벼 재배지의 토양 지역 증진과 병해 예방을 위해 '벗짚 환원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1,174ha의 논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벗짚환원 지원사업'은 벼 수확 후 발생하는 벗짚을 잘게 잘라내 가을에

같이엮은 논지에 대해 1ha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벼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순창군은 애초 계획된 예산 외에도 군비 1억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사업을 통해 총 1,480농가, 1,174ha의



벼 재배 논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 순창군 전체의 깨서무늬병 평균 발생률이 14.9%에 달한 반면, 벗짚 환원사업이 시행된 논은 발생률은 3.64%로 나타났다. 이는 약 11%포인트 이상의 뚜렷한 병해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복지정책 등 살펴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는 복지·돌봄·주거·일자리 정책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여건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손중열 위원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내구성 있고 편안한 소파 구입

등 환경개선을, 오창숙 부위원장은 자활을 위한 근로사업단 운영으로 인해 주변 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길수 위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양보다 질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오동환 위원은 춘향제 등을 홍보할 때는 효과성을 고려

해 전국 단위로 송출되는 주요 중앙방송 활용을 강조했다.

김정현 위원은 남원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교육, 문화요인을 꼽으며 정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강인식 위원은 남원시의 주도적인 공공의대 유치 추진 및 법안 통과를 대비해 후속절차를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이미선 위원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남원시도 적극적인 대비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비용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순창소방서는 최근 비용급환자에 의한 119구급차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비용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긴급 지원인 만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서비스는 심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단순 통증, 가벼운 감기나 경미한 할과상, 일시적 주취 상태, 정기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은 응급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비용급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도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공공 지원인 만큼, 비용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소방서, 겨울철 노후 아파트 관계자 소집교육

임실소방서(서장 김삼근)는 지난 16일 임실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아파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부산 지역 노후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노후아파트 화재 피난약자 감지기 보급사업 안내 △유상문 자동개폐장치 자율설치 필요성 홍보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관련 정책 추진사항 △공용부분 물건 적치 등 피난·대피 동선 방해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